

## 성탄과 신년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루카12:48, 2017년1025일 복음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서는 각각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다해왔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쿄 대교구의 대주교의 사임은 수리되었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는 특히, 저에게 요구된 일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3:28)

고 바오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로마6:15)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올해는 ‘루터 종교 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1월23일에, 나가사키 우라까미 교회, 주교좌 성당에서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제였으며, 무척 열심히 진실한 수도자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고행했으며, 성서를 배우고, 성서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편을 강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시편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강하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저를 해방시켜주소서.”

(시편31:2)

이는 불가타(라틴어) 성경의 직역입니다만, 루터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의로우심’이란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엄하신 태도였으며, 자신은 하느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며 늘 죄의식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로우심’이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의로우심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우심이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당신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으로 루터는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덧붙여서, 구약성서의 원문에서는 ‘체데쿠, 체다카’라는 말로, 이는 하느님께서 구속하시며,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강한 말로서,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그 행위에 상응해서, 엄격히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루터의 이런 해석은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의 대화가 진행되었고, 기본적으로 ‘의화(義化)’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며,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본이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 어떤 말로,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고 있고, 삶의 보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편안함과 구원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답을 구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결의를 새롭게 하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인생의 의미에 곤혹스러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감싸주시는 지를, 우리는 자신의 말과 생활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림절

사이타마 교구 관리자

대주교 베드로 오까다 다께오